24개 모임 참여… 울산 지역 봉사 '중심'



해남사 보리회 회원들.



해남사 보리회 회원들이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

'수자타의 집'

B1면에서 계속

최천선(58 · 묘운화) 봉사자는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보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똑같아질 모습이죠. 그분들이 찾아와 공양을 드실 때 그분들이 복 짓게 해주시는 부처님이란 걸 느낍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봉사자는 봉사를 통해 마음이 커지는 보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도 했다. 오정학(63 · 상품화) 봉사자는 "길을 가다 어르신을 뵈면 나도 모르게 행복과 건강을 기도하게 된다"며 "따뜻하게 기도하는 내 마음을 볼 때 이 모든 가르침이 바로 어르신들이 주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수자타의 집' 탄생

수자타의 집을 이끌고 있는 울산 해남사는 통도사에서 문을 연 도심 포교당이다. 1911년 당시 통도사 주지 구하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해남사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문을 열었다. 울산 청년불교운동의 중심인물들과 항일구국운동을 목표로 조선불교청년회로 활동하며 통도사불교청년회, 울산불교청년회와 협력했다. 해방 이후에는 야학원, 고등학습회, 해영학원, 유치원 등 교육을 담당했다. 처음 해남사가 들어설 당시, 울산시 중심지로 가장 큰 번화가인 곳에 위치해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담당했다.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울산은 공업도시로 큰 성장을 거듭했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해남사 주변은 점점 중심에서 멀어졌다. 몇 년 사이에 해남사 주변은 젊음의 거리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으로 바뀌었다. 그때 당시 해남사 앞 50m 앞에 위치한 동헌(東軒)은 울산시의 유일한 공원이었고 어르신들이 친구를 찾아 바둑과 장기를 두며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해남사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해남사에서 행사나 법회가 있는 날이면 어르신들은 함께 공양을 했다. 범해 스님은 어르신들이 절을 찾을 때면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법회가 없을 때 어르신들께 공양 올릴 방법이 없었다. 고민하던 범해 스님은 1996년 해남사 앞에 있는 제과점을 인수한다. 스님은 모두에게 공양을 베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부처님과 같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그런 의미를 시설의 이름에 담고 싶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스님의 머릿속으로 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수자타의 집' 이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불자들의 집인 것이다.

범해 스님의 원력불사에 울산에 있는 많은 스님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매주 스님들은 순번을 정해 직접 신도들과 함께 찾아왔다. 당시 내원암 만초 스님, 법륜사 정진 스님, 옥천암 영안 스님, 등용사 본명 스님, 학성선원 우룡 스님, 청룡암 종현 스님 등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다. 통도사 방장이었던 월하 스님은 칭찬을 거듭하며 직접 한글로 '수자타의 집' 현판 글씨를 적어주고 격려하며 후원금도 전달했다.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해남사 주지를 역임했던 성본, 만초, 남현 스님 그리고 현 주지 혜원 스님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불자들은 재를 지내거나 생일 등 개인적인 행사가 있으면 보시금을 내고 후원하는 곳이 됐다. 말 그대로 경남 불자들의 정신이 깃든 곳으로 자리 잡게 됐다.

봉사가 부처님 공부

"봉사하며 부처님 가르침 공부"

"아는 것이 힘 아니라 실천이 힘"

"어르신들이 곧 나의 부처님"

해남사 신행학교 출신들 봉사터

행복의 근원 봉사에서 찾아

"봉사는 스스로를 지키는 계율"



2018. 12. 김장봉사.

현재는 불교대학으로 운영되는 해남사 신행학교 출신들의 봉사터가 되고 있다. 신행학교는 현재 15기, 총 1500여 명이 졸업했으며 지금은 16기가 공부 중이다. 수자타의 집은 졸업생들의 봉사 모임인 보리회의 수행현장이 됐다. 봉사자들은 '봉사' 를 하라고 권한다. 그들은 행복의 근원을 봉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봉사는 스스로를 지키는 계율이 된다고 했다. 봉사가 계(戒)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들이 봉사에 가치를 두는 만큼 봉사를 아름답게 회향하려면 평소 행동이 바르고 맑아야 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해드리려 찾아오는 날에는 미리 집 안 일을 깨끗이 해두고 상차림도 신경을 더 씁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요.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봉사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안과 밖이 다르냐는 비난입니다."

이기숙(57 · 혜명심) 봉사자의 말이다. 어릴 때부터 해남사서 공부하며 학생회 출신으로 부처님오신날이면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이어온 그녀이다. 수자타의 집에서의 봉사는 5년차다.

"봉사가 진짜 나눔이 되려면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했어요. 봉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8남매 중 막내이지만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봉양도 안하면서 다른 어른들의 식사를 차리는 건 기만이라 느꼈기 때문이지요"

봉사자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항상 하게 된다고 했다. "나의 봉사는 떳떳한가?" 그들에게 봉사는 스스로를 점검하는 죽비가 되었다.

정옥순(60 · 보화수) 봉사자는 "봉사는 삶의 활력소다"며 "고된 직장 업무로 일이 힘들 때 봉사는 오히려 힘을 채워주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다.

22년간 수자타의 집에서 봉사를 이어온 창립멤버 김태언(57 · 보문행) 봉사자는 "아이가 태어나고 8살 되던 해, 수자타의 집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손이 많이 가는 시기였지만 잔소리가 아닌 살아 있는 모범으로 아이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엄마를 보며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을까요? 봉사는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집을 가꾸며 평소 불자로서 흠 잡힐 부분이 없어야 비로소 봉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해남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남사 인근에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중구청은 구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수자타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주지 혜원 스님은 "같이 개발되어 더 좋은 환경이 제공 되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해남사가 혹시라도 사라질까 염려한 기자의 질문에 "없어지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는 답이었다. 이어 혜원 스님은 수자타의 집을 '분별심을 넘어서는 성장터' 라고 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가르치는 살아 있는 현장이란 뜻이다.

"숨어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봉사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르신이 부처라는 말인 동시에 봉사하는 그들이 바로 부처라는 뜻이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양' 은 부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하다. 부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 수자타의 집에선 지금도 깨달음의 공양이 고슬고슬 지어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 2019년 –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 지 도 제



새벽예불 | 새벽 4시 15분
초사흘 법회 | 음력 1일 ~ 3일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아함경 강의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새벽아함경강의 | 새벽 5:45 ~ 6:15
지장재일법회 | 음력 16 ~ 18일
선재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목련합창단 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1시
사시예불 | 매일 오전 10시
관음재일법회 | 음력 24일
반야심경 강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기본교리 강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산정동) | 062)955-4407

마음愛자비를! 세상愛평화를!

21세기 새로운 불교 수행 공동체

사단법인 통섭불교원

원 장 김 성 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월 8일, 15일, 23일, 30일 사재일에는 오계를 꼭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계를 받고 사재일에 오계를 지킴으로 스스로 불자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불교강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명상 · 힐링 상담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참선수련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참선 철야 수련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대구 남구 대명역 1길 11 통섭불교원 | 053) 621-2256 www.tongsub.com